

신생 기업 5년차 생존율 30%뿐...70%는 못 견디고 '폐업'

새로 탄생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생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 열에 일곱은 창업 5년차까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열에 넷은 1년 만에 폐업하고 있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을 영위하는 1인 사업장들이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년차 신생기업(2017년 창업)의 생존율은 63.7%였다. 하지만 5년차 신생기업(2013년 창업)의 생존율은 31.2%에 불과했다. 5년차 생존율은 1년 전에 비해서는 2.0%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업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이 업종의 5년차 생존율은 79.3%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금융·보험업(17.6%), 예술·스포츠·여가(20.5%), 숙박·음식점업(20.5%) 등은 생존율이 특히 낮은 업종들로 분류된다.

2018년에만 70만곳 문 닫아...하루에 1896개꼴 문 닫은 기업 74%는 연매출액 5000만원 미만 92%는 1인사업자...주로 도소매·부동산·음식점

지난해 생겨난 신생기업은 99만 7000개로 전년 대비 8.4%(7만 7000개) 늘었다. 신생기업들이 많이 분포한 업종은 부동산업(25.3%), 도·소매업(20.3%), 숙박·음식점업(16.7%) 등으로, 이 3개 업종이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신생기업의 92.3%는 개인기업이었다. 특히 종사자 1인 기업은 89만 3000개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대표자 연령은 40대(27.7%)와 50대(25.7%)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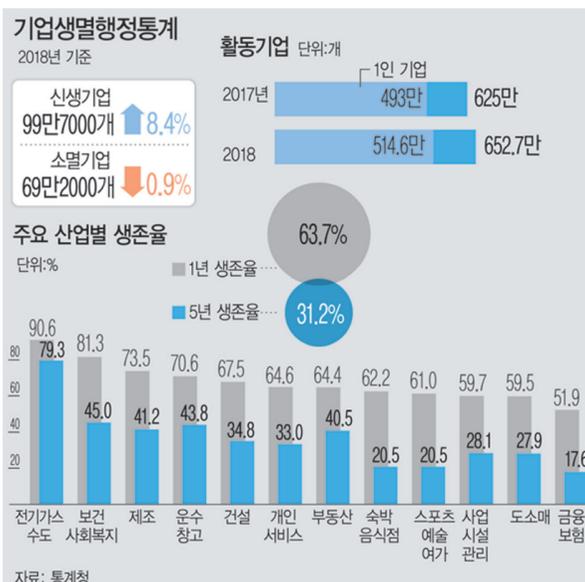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활동기업은 총 652만 7000개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4%(27만 7000개) 늘어난 숫자다. 이 가운데 89.4%(583만 2000개)는 개인기업, 10.6%(69만 5000개)는 법인기업이었다. 종사자 수가 1인인 곳은

78.9%(514만 6000개)였다. 활동기업 중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활동기업의 절반가량인 49.8%는 매출액 5000만원 미만 기업이다.

작년 신생기업과 활동기업 수는 모두 역대 최대치다.

2018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소멸기업은 69만 2000개로 1년 전보다 0.9%(6000개) 감소했다. 하루에 1896개씩 문을 닫은 셈이다. 특정 기간 활동기업 수 대비 소멸기업 수 비율인 소멸률은 11.1%로 1년 전보다 0.4%p 하락했다.

소멸기업 가운데 93.4%는 개인기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1인 기업이 91.6%였다.



소멸기업이 많이 분포한 업종을 봐도 자연업자가 많은 도·소매업(25.3%)과 부동산업(20.5%), 숙박·음식점업(20.0%)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소멸기업의 73.7%(51만 6000개)는 연매출액이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이 5000만~1억원 사이였던 곳은 10.9%였다.

이렇게 문을 닫는 기업들에 속해 있던 93만 8000명이 일터를 잃었다. 소멸기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1년 전보다 3000명 더 늘었다.

한편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한 기업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다만 이들 중 사업자등록 5년 이하 기업(가젤기업)은 3.5% 늘어났다. 20% 이상 고성장한 기업도 3.3% 감소했지만 가젤기업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작년에는 세계경제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성장 기업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 분야 신생기업들의 빠른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노래방 영입금지에 블루투스 마이크 판매량 증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노래방 영입이 금지되면서 휴대전화 반주 앱과 연동 가능한 블루투스 마이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9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악기상가의 한 마이크판매업체 직원이 블루투스 마이크를 시연하고 있다.

기아차, 코로나19 최적화 고급버스 출시...좌석간 항공커튼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 "탑승객 안전·시장수요 확대 기대"

기아자동차가 9일 고급 대형버스 그랜버드 슈퍼 프라이머에 비대한 사양을 대폭 적용한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을 출시했다. 이 모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발됐다. 개인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은 좌석간 전후 거리를 845mm에서 900mm로 55mm 넓히고 시트 좌우 크기를

480mm에서 630mm로 150mm 늘려 탑승객의 독립 공간을 확대한 독립 우등시트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좌석간 항공 커튼을 설치해 비말을 차단하고 프라이버시 공간을 제공해 탑승자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위해 이온을 발생시켜 항균과 제균 작용을 하는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온이저도 장착했다. 또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 주는 공기청정기 ▲신선한 외기 공급



을 위한 실내 공기 자동환기장치 ▲운전중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전동식 해치를 추가해 최상의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의 가격은 스탠다드데커 모델의 경우 1억9360만원부터, 하이데커 모델은 2억9400만원부터다.

르노삼성 뉴 QM6 LPe, 소상공인이 선택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LPG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뉴 QM6 LPe'가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9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이달 전체 차량 계약 중 17%(12월 7일 기준)가 소상공인 프로모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중 90%는 뉴 QM6와 XM3 등 르노삼성을 대표하는 두 SUV 차종이었다. 소상공인 계약 물량 가운데 뉴 QM6가 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XM3가 24.5%를 기록했다. 또 뉴 QM6를 계약한 소상공인들 중 60%가 뉴 QM6 LPe 모델을 선택했다. 뉴 QM6 LPe 모델 중에서도 상위 트림인 RE와 시그니처를 선택한 소상공인이 많았다. 르노삼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소상공인을 위해 12월 한달간 뉴 QM6, THE 뉴 SM6, XM3, 르노 캡처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15만원의 특별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뉴 QM6 LPe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LPG 전문 회사 E1에서 6개월 동안 충전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뉴 QM6는 쿼터 윈으로 완성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전 트림에 걸쳐 기본 적용한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풀 LED 리어 콰터레이션 램프 및 다이나믹 턴 시그널(후방)을 적용해 더욱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이번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



트립 동승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및 윈도우 버튼 라이팅을 기본 적용하고, 아웃사이드 미러 메모리 및 후진 자동각도 조절, 오토 클로저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추가 및 신규 적용했다. 가격은 2435만~3245만원(개소세 3.5% 기준)이다. 르노삼성은 '뉴 QM6' 구매자에게 최대 36개월간 1.9% 또는 최대 72개월간 2.9%의 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착한 임대인에 최대 7천만원 용자...대출금리 연 1.97%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무상 전기안전점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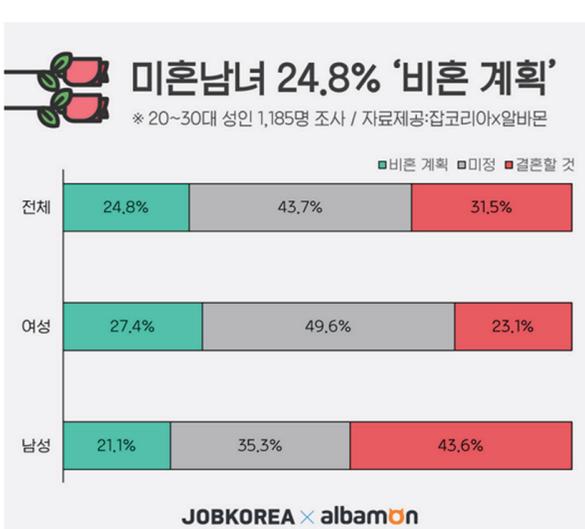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도 한 시적으로 정책자금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정책을 밝혔다. 무상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임대업자(부동산업)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 10% 이상을 깎아주거나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등이다. 대출조건은 ▲금리 연 1.97%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 70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10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다. 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

공) 지역센터다. 중기부는 아울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 무상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라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미혼남녀 4명중 1명 '비혼' 꿈꿔...男 '경제적 부담' vs 女 '관계 부담'

혼인 건수, 23만9200건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



통계청 발표(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혼인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8년 연속 감소하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젊은 층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자발적 선택'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을 계획하는 미혼남녀가 4명 중 1명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성공 1위 플랫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최근 20~30대 성인 1185명을 대상으로 '비혼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대 대부분이 '비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비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2%가 비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 응답자 중 93.7% 남성(69.2%)보다 높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응답자는 16.8%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20~30대 미혼남녀 중 '비혼'을 계획하는 응답자도 4명중 1명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30대 미혼남녀 1,025명에게 '향후 결혼을 할 계획인가' 질문한 결과, 24.8%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혼을 계획한다고 답했다.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1.5%였고, 43.7%는 '잘 모르겠다(미정)'고 답했다. '비혼'을 계획하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

담 때문'이 가장 높았고, 여성 중에는 '결혼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비혼을 계획하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중에는 '결혼/주택마련/육아 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비혼을 계획한다'는 응답자가 7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으로 인한 관계(양가 가족/가족행사 등에 얽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57.3%)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56.2%)이라는 답변이 절반이상의 응답률로 높았다. 이외에도 '내 가족보다 나에 집중하는 삶을 위해' 비혼을 계획한다는 남성이 48.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중에는 '결혼으로 인한 관계에 얽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응답률 62.4%로 가장 많았고, '내 가족보다 나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비혼을 계획한다는 답변도 61.8%로 많았다. 이어 ▲결혼/주택마련/육아 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때문(50.9%)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35.2%) ▲직업적 성공을 위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29.1%) 순으로 비혼을 계획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비혼을 유지하기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비혼을 계획하는 이들은 비혼을 유지하기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력'을 꼽았다. 조사결과 복수선택 응답률 7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테크/노후준비 등 경제관념(46.9%) ▲여가생활을 위한 취미(31.9%)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29.5%) ▲본인 삶에 대한 신념(29.1%) 순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김민희기자